

KSC 파리

1 경제 · 산업 이슈

□ 호르무즈 해협 봉쇄발 에너지 쇼크,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고조 (2026.04.30.)

< 주요 내용 >

- ♣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으로 프랑스,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인플레이션 일제히 상승하며,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확산
 -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프랑스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7.3% (3월 기준) 급등하고, 독일 에너지 부문이 10.1%(4월 기준) 상승하며 독일 전체 물가를 2.9%까지 견인함. 같은 기간 프랑스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.2%를 기록함
 - 특히 프랑스는 1분기 GDP 성장률이 0%로 정체됐으며, 연간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 0.9%에서 0.6%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거시경제 환경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

○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

- 에너지 비용 상승 장기화에 따라 데이터 센터, 생산설비, 배송망 등 물리적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의 운영비 부담 급증이 예상됨. 또한, 식품, 에너지, 내구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가계 소비 위축으로 B2C 서비스 및 소비재 기반 기업의 초기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.
-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유럽중앙은행(ECB)의 6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, 벤처캐피탈(VC)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 및 자금 조달 환경 악화 예상됨
- 반면, 공급망 위기와 재무장 수요 확대와 에너지 공급 문제의 궁극적 해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, 방산 산업 분야 솔루션 기업 및 에너지 효율화, 대체 에너지, B2B 비용 절감 솔루션 기업에 기회가 열릴 전망

< 출처 >

<https://www.ft.com/content/cd9bb4c2-7597-4b7f-9d61-378c755493b0?syn=25a6b1a6=1>

https://www.lemonde.fr/en/economy/article/2026/04/30/french-economy-chills-as-growth-stalls-and-inflation-rises_6753018_19.html?lmd_medium=al&lmd_campaign=envoye-par-appli&lmd_creation=ios&lmd_source=default

<https://www.lefigaro.fr/conjoncture/cessez-le-feu-en-iran-quel-sera-l-impact-sur-la-croissance-francaise-20260408>

□ 프랑스, 전자세금계산서(facturation électronique) 의무화 (2026.04.10.)

< 주요 내용 >

♣ 프랑스 정부, 2026년 9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 통해 세무 행정 및 기업 운영 방식의 디지털화 촉진

- 국가 승인 플랫폼을 통한 송장 발행·수신 의무화.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제도 시행
- 부가가치세(VAT) 신고 사전 기입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,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의 세무 행정 효율성 제고
- 플랫폼 선택 시 해지 조항 및 요금 변동에 대한 기업 차원의 사전 검토 필요

○ (제도 시행 및 실무 환경 변화) 프랑스 정부는 세무 투명성 제고 및 기업 운영 현대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의무화함(2026년 재정법 제123조).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국가 인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된 형식의 청구서를 발행 및 수신해야 함.

- 기업은 고유 식별 번호를 기반으로 청구서를 송·수신하며, 의무 위반 시 미발행 건당 50유로, 플랫폼 미등록 시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
- 계산대(POS) 소프트웨어의 경우, 판매 데이터를 10일마다 승인 플랫폼에 전송해야 하므로 인터넷 연결 및 법적 표준 인증을 받은 장비로 교체 필요
- 실시간 데이터 확보를 통해 연말 결산 전에도 수익 및 매출 추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경영 환경의 조성이 기대됨

○ (세무 행정 변화)

- 프랑스 정부는 실시간에 준하는 거래 데이터 확보를 통해 업종·지역별 경제 흐름을 즉각 파악 가능하며, 이를 기반으로 2027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전 기입 서비스(Pré-remplissage)를 도입 예정. 또한, 위기 상황 발생 시 특정 기업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경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
- 기업은 부가세 환급 신청 및 재정 지원 요청 시 필요한 반복적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

- (플랫폼 계약 리스크) 인증 플랫폼 선택 시 가격뿐만 아니라 기능성,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성, 해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, 특히 장기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됨

[참고] 주요 일정

2026년 9월 1일 ~

- 모든 기업전자송장 수신 의무
- 대기업 및 중견기업전자송장 발행 및 e-reporting 의무
-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전자송장 발행 및 e-reporting 의무 (전면 시행)

< 출처 >

<https://www.lefigaro.fr/entrepreneur/la-facturation-electronique-en-pratique-tout-ce-qu-il-faut-savoir-pour-etre-pret-20260420>

<https://www.lefigaro.fr/entrepreneur/entreprises-la-facturation-electronique-ce-big-bang-fiscal-qui-change-tout-20260407>

<https://www.lefigaro.fr/entrepreneur/facturation-electronique-ces-precautions-a-prendre-absolument-avant-de-signer-avec-une-plateforme-agreee-20260410>

□ KSC 파리, 새팜에 쉬프(Suippes) 지방자체단체와 협업 기회 연계 지원

○ (지원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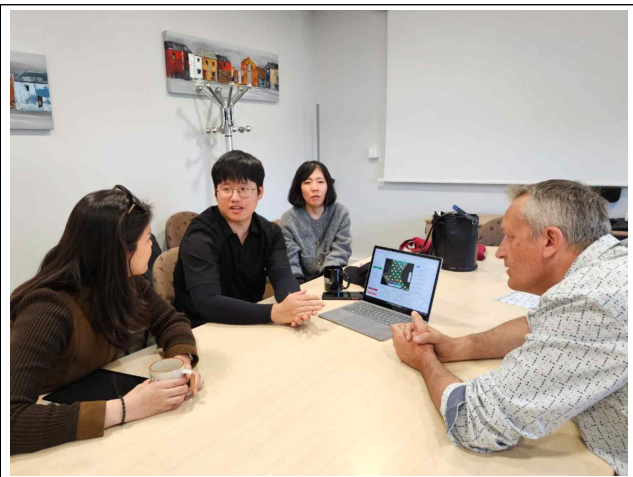
- KSC 파리는 위성 및 AI 기반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새팜(SeaFarm) 과 프랑스 쉬프(Suippes) 지자체 간의 협업 기회 지원. 지자체장과 함께 농지 및 군청을 방문하여 지역 농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새팜의 기술 솔루션 소개를 통한 협업 기회 발굴 및 현장 통역 지원.

○ (기업소개) 새팜(SeaFarm)

- KSC 파리의 입주기업인 새팜은 AI와 위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밀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, 농지별 작물 생육 상태와 병해충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, 관수·시비·방제 등 투입 자원 최적화를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수확량 극대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. 현재 양평농협 노지 스마트 농업 통합지원센터 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내 다수 농지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, 나아가 말레이시아,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스마트 농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.



쉬프 지역 농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새팜



새팜의 기술 솔루션을 소개하는 새팜과 KSC 파리